

제16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5. 11. 27.(목) 10:30

장 소 : 서울연구원 정동별관 영상회의실

참 석 자 : 이사 11명, 감사 2명

심의안건

1.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2.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3. 2026년도 사업계획(안)
4.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5.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6.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계약(안)
7. 2025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

□ 이사회 개회

- **000 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000실장 000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이사회는 이사님과 감사님 총 열 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임 노동이사님이 올해 5월에 신규임명 되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수여, 이사장 대독]**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열 다섯분 열 한분이 참석하셔서 서울연구원 정관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000 이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6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서 노동이사님과 이사, 감사님이 새로 오신분들이 계셔서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
- **000 이사:** 오늘 이사회 안건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총 7건 입니다. 또한 1건의 보고안건으로 2026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담당 부서장인 000실장과 000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1]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 [안건2]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000 이사:**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다음 안건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라 두 건을 일괄상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00실장은 안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 **000 실장:** **[안건 설명]**

- **000 이사:** 본 안건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잠시 부연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000 원장:** 저희가 통합 이후 작년 10월에 1차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3본부를 뒀었는데 1년정도 운영한 후에 연구실별 운영으로 복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조직이 통합이 되면서 정원도 늘고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연구지원이나 행정부분이 연구와 유기적인 연결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을 통합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는 연구기획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전체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사회, 노동이사와의 협력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부원장이 행정까지 모두 담당하다보니까 연구 자체의 혁신과 융복합연구 활성화에 여력이 잘 미치지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부원장의 개념으로 연구총괄과 융합연구를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이슈가 글로벌화인데 국제협력 등도 부원장이 총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000 이사:** 말씀주셨듯이 부원장님 체제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많이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 **000 이사:** 양 노조위원장과 의견을 조회해보았는데,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의견으로 앞으로 연구와 연구행정이 딱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업무분장 세분화가 중요할거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000 이사:** 다른 이사님들 의견있으시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이사:** 그럼 기존 부원장님과 새로 생기는 본부장님과의 역할 조율은 정리가 좀 되었나요?
- **000 원장:** 노동이사님 의견은 부원장이 연구만 총괄하게 되면 지원기능이 약화되지 않냐는 의견인건데, 부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여러가지 행정업무의 장을 하게 됩니다. 부원장의 핵심역량을 연구에 집중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이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3] 2026년도 사업계획(안)

- **000 이사:** 세번 째 안건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00실장은 안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 **000 실장:** **[안건 설명]**
- **000 이사:** 본 안건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추가 설명할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000 원장:** 제가 최근에 우리 연구원이 세계적으로 드문 연구기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과, 이과, 과학기술, 사회과학, 도시 등 연구진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아주 드물고 그에 상응하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융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지만 2026년에는 융복합연구를 좀더 고도화시키고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을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통합기관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줄것이나, 또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부분, 연구분야에 AI 접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000 이사:** 여기서 연구의 각론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서울시 고민사항을 공유드리자면 연구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연구원의 주요 역할과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설계 시 정책의 효과나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을 염두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원과 많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데이터를 다양하고 많이 축적해놓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000 이사:** 연구사업비가 전년대비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수행목표건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바꿔말하면 개별연구과제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이는 연구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데 건수를 늘리는것이 맞는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기반연구를 강조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건수를 늘리는것 보다는 융합연구나 기초관련 부분에 좀더 투자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행안부 과제를 지원했는데 과제비가 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적은 64억으로 약 300개의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연구원이 서울시 요구를 많이안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슈화가 안될뿐이지 이미 다 하고 있고 한것도 있습니다. 양 만을 강조하는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 **000 원장:**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이 목표로 세운 수치보다 더 많은 수의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같은 경우 돈이 많이들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000 이사:** 연구에 필요한 차원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의 성과 측면에서 봤을때 연구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화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000 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10월로 300건 이상의 과제를 한 상황입니다. 연구 양적 확장보다는 품질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과제목표건수는 크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000 이사:** 000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AI는 국가의 국운을 좌우하는 큰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연구를 하는 서울연구원에서 이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도시가 되려면 좀더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등이 있는데 기술연구원 통합도 되었으니 세분화해서 정책개발 할 수 있는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정책개발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이사:** 원장님께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신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계획에 미시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현안 중에 주택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대책이 나온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안을 연구원에서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글로벌 통상이슈가 매우 큰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말한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문제가 대두될거고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리스크나 대책, 지원책 등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거대담론을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면 서울시 목소리가 커질거고 아무래도 좋은방향으로 위상도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브랜드네임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시장님의 이니셜을 따서 '오벨트'로 명명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도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이사:** 저도 동의하고요. 사업계획이 일반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쪽에서도 직매립금지가 큰 이슈였는데, 서울시 입장이 관철이 되지 않았습디다. 그럼 앞으로 서울시의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릴것인지, 민간사업장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과

전략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이사:** 융합하는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를 보통 얘기하는데 행정분야에서도 종건관리자의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불거진다는 주장도 많거든요. 그럼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 시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잘 대응할 수 있는것 이냐.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계획 리스트를 보면 포용도시연구실과 경제혁신연구실 연구들이 연결될 수 있어 보이는 것 들이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이 상당히 독특하고 전 분야의 연구를 커버하기 때문에 아젠다를 잘 연결하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이사:** 여러 사업 중에 시와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시대 트렌드는 맞지만,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우선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구축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면 외부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하고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빅데이터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내어 한두건의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이사:** 연구원이 통합돼서 규모는 커진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연구원과 시립대의 협업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을 참여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를 한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융합이라는 것이 연구자 본인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참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시니어들이 생겨나니 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외부와 협력하는 인력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연구와 현안연구의 비중이 높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탐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정도는 서울시
공직자들과 연구원 연구진들이 미팅을 하거나, 1박2일을 해도 좋고요.
좀더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성과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리빙랩이라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실제로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서울연구원도 도시화에 맞춰서 시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노하우와 데이터를 쌓는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이사:**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해상도라고 할까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점은 사실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정책으로 나와서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류구조가 보통 서울시에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하게
되고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게 되는데 전체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포럼이나 외부 자문회의를 해보면 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의견이나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구자체가 바로 정책화로
연결하기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대와의 협업 부분에서 시립대와 무언가 협력을 해보고 싶어도
연구원 과제예산 단위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고비 정도로
제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이사:** 제 말씀은 바로 예산에 반영하라는것은 아니고, 향후에
공동으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입니다.
- **000 이사:** AI재단하고 협업을 계획하고 계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000 원장:** AI재단하고 매년 빅데이터포럼도 개최하고 있고 공동연구를
부분적으로 하고있긴 한데, 아직 AI재단이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깊게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관장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000 감사:** 별첨자료 p.2를 보면 서울시와 의회와의 협력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신설하는 기획조정본부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럼 정책협력관과의 업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기능이 겹치는거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000 원장:**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에서 국장님 한분이 파견나오시는 직책이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항상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직원이 담당하는게 필요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협력관은 아마 한동안은 공석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 **000 감사:** 연구원에서 서울시 정책연구를 많이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서울시 실국에서 연구원에 요청하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매번 협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000 이사:** 연구원에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정책연구 현안연구 등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융복합 등으로 방향을 잡아주신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중에서 고려하고 반영할 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해주실때 반영을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릴거 같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시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서울연구원이 필요한 인력의 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솔루션 영역 정립이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과 연계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시는 필수영역이라 방법론을 좀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 정책연구도 좋지만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예를 들어 부동산과 주택문제 등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책을 많이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00 원장:** 이사님들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부전략에 대해서 연구인력들과 함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회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책연구원 관리업무를 해봤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솔루션포럼에서 토론폰도 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연구들은 사업계획(안)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색깔이 크게 들어갈 여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루틴에 익숙해진 점도 있어보이고, 어떤 때에는 핵심이슈에 대해 대처가 늦기도 한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연구주제에 대한 기획을 좀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이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4]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 **000 이사:** 네번째 안건으로,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00실장은 안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실장:** **[안건 설명]**
- **000 이사:** 원장님께서 추가 설명할게 있으신지요?
- **000 원장:** 예 서울시의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전년대비 출연금을 많이 증액해주셔서 어깨가 좀더 무겁고 5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성과를 잘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예산은 인건비 증액된 부분정도 있었고 나머지 사업비나 경상경비는 최대한 아껴서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이사:** 000이사님 2026년 출연금이 419억정도인데 이 금액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거죠?
- **000 이사:** 예 제가 듣기로 출연금이 크게 늘어난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출연금이 낮은 이유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잔여자산을 모두 투입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것만 봐도 작년에도 역시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인데, 이 예산규모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000 이사:** 예 같은 맥락인데, 출연금이 증액 된 것만 초점을 맞춰서 공격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체수입 중 내부유보금이 줄어든 만큼 출연금이 올라간것인데, 내부유보금이 어떤 내용인지요? 또한 연구사업비는 조금 줄었는데 경영사업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000 이사:** 내부유보금은 통합과정에서 잔액을 이전하면서 늘고 줄어 들고 한거라 그것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000이사님 말씀처럼, 연구사업비 경영사업비가 늘고 줄어든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연구사업비가 좀더 늘어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000 원장:** p.13을 보시면 청사운영 부분이 증액 된 것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 별관 이전 건입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 조금 저렴했었고 이번에 갱신하고자 하니 좀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순수하게 연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실 여기 인건비와 합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이사:** 감사님 혹시 의견있으신가요?
- **000 감사:** 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000 이사:** 예산은 아마 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우리가 서면으로 다시 의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미리 인지부탁드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5]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 **000 이사:** 다섯번째 안건으로, 회계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00실장은 안건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실장:** **[안건 설명]**
- **000 이사:** 원장님 부연설명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 **000 원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 **000 이사:** 의견있으신 이사님들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6]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계약(안)**

- **000 이사:** 여섯번째 안건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계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00실장은 안건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실장:** **[안건 설명]**
- **000 이사:**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는 동일한 업체인가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 **000 실장:** 예 특별한 문제없었고 잘 운영하였습니다.
- **000 이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새롭게 공개입찰해서 선정된 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인가요?
- **000 실장:** 업체가 바뀌긴 하였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인력들은 인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때마다 계약사항이나 소홀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000 이사:** 000이사님 의견있으십니까?
- **000 이사:** 없습니다.
- **000 이사:** 안전은 시설물 안전도 있지만 우리나라 3개 통신사가 모두 해킹되었음에도 뉴스화가 크게 되지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빅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안전분야도 통신이나 데이터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연구원도 서울시와 협력하셔서 대응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실장:** 서울시에서 전체 출연기관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의 정보와 방화벽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완벽하진 않아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이사:** 네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얼마전에 정부 시스템에 불이나서 일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된적이 있는데, 우리도 연구자료가 상당히 저장되어 있을텐데 데이터가 이원화 관리 등이 되고 있나요? 화재가 나도 잘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
- **000 실장:** 이원화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때 2가지 대응을 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의 신속 점검이 있고 두번째는 문서유통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외 사항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000 이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기 2025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

- **000 이사:** 일곱번째 안건으로, 2025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00 이사:** 제안설명하기 전에 원장님을 잠시 밖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벌써 나가셨네요. 그러면 000실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실장:** [안전 설명]
- **000 이사:** 참고로 2024년은 10개월만 산정했고, 2025년 12개월 산정인거죠? S등급도 있습니까?
- **000 실장:** S등급은 3%인상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이사:** 000이사님 의견있으십니까?
- **000 이사:** S등급은 아마 두분 받으셨던걸로 압니다.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 **000 이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안전

- **000 이사:** 이상으로 안전심의를 마치고, 보고안전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별첨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을 000실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실장:** [안전 설명]
- **000 이사:** 000이사님 의견있으십니까?
- **000 이사:** 네 저희가 일년 내내 신경써서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000 실장:** 중대재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률을 항상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000 이사:** 이사님들 다른의견들 있으신가요? 안전보건관리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논의사항

- **000 이사:**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수입·지출 예산 수정(안) 관련입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연구원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안건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12월 중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출연금 규모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추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증감될 경우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 수정(안)'에 대해 12월 중 서면 이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정기이사회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2월 23일(월)~27일(금) 중에 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그럼 2026년 2월 정기이사회는 2월 27일 금요일 조찬으로 결정하고, 세부일정은 연구원에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이사:** 원장님 통합 이후에 연구원 현안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000 원장:** 현재 임원분들이 기존 기술연구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관통합 이후 이슈가 되는것들에 대해서 이사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소송 건인데요. 2023년 11월에 통합을 하면서 조례를 법적근거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포괄승계 방식으로 진행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했는데요. 이때 "취업규칙이나 보수 등은 서울연구원의 제규정을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술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직 행정직들의 일부는 서울연구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급여가 올라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일부직원들은 특히 석사급 연구원 등은 보수가 저하가 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2년간에 걸쳐 조정수당을 지급할수있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 2025년 10월 급여지급을 마지막으로 2년이 지나서 조정수당을 지급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기술연구원 노조에서 이전부터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과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 1심에서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후 기술연구원 노조에서 항고를 했고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던 봉급이나 정년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했고 조례로써 상위법을 위반하여 그 조항은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있을 때 까지만 가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은 2025년 12월19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처분 임에도 본안소송처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본안소송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의 법적근거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소송 1심이 2025년 12월19일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받아서 금년 2025년의 보수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당장 노사협의를 해서 금년의 보수를 마련하고자 하고, 행안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4.4%와 통합기관 +1%까지 해서 총 5.4%의 재원을 가지고 임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본급이 깎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보상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 올해 9월에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이유가,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려는 의도였는데 노사 간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됐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판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연구원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 및 마무리 말씀

- 000 이사: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68회 정기이사회 안건심의와 주요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25. 11.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